

의무기록에 반영된 부랑인 환자의 사회의료적 특성에 관한 고찰

박 효 숙
중로구 보건소

부랑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사회의료적 특성을 연도별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의료보호영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에서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서울 소재 시립D병원의 1992년과 1994년 2년간 의무기록 각각 2,436명과 2,419명 총 4,855부를 SPSS를 이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사회적 특성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요일별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가장 많이 내원하였다. 의뢰지는 경찰서 또는 구청과 같은 관공서가 가장 많아 65.6%였으며, 퇴원지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없이 퇴원한 사례가 59.2%로 가장 많았고 이는 1992년보다 1994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부랑인들이 치료·입원할 수 있는 보라매병원의 개원(1992년 11월)과 카톨릭재단의 성가병원(성북구관내), 도티병원(은평구관내)에서 부랑인을 위한 외래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의료기관의 관리적 특성

성별내원 대비는 남녀대비가 7 : 1이었고 연도별로는 1992년이 8.51 : 1로서 1994년의 5.91 : 1보다 더 컸으며, 25~44세의 성인 초기에 있는 남자의 내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한다. 한편, 관찰후 입원이 결정되는 백분율은 전체로 8.8%정도이지만 연도별로는 1992년보다 1994년이 배이상 증가하였다.

유료전환은 대체로 4% 내외의 수준이었으며,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따라 관찰자수는 밤번의 경우만 1992년의 경우 평균 5.29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평균 4.08명으로 약 1명이상 감소하였다. 재원(입원) 환자수는 낮·초·밤번의 각 영역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재원환자수는 1992년의 경우 평균 30.76~32.55명이었으나 1994년에는 25.63~26.87명으로 약 5~6명 정도 감소함을 보였다.

3. 의료적 특성

관찰일수는 1992년보다 1994년이 다소 짧아 평균 1.60일이었고 재원일수는 연도별 차이는 없으나 26.93~30.31이었다. 질병종류수는 1992년이 1.11인 것에 비해 1994년은 1.16으로 1994년이 다소 많은데 이는 환자들의 질환이 합병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관찰기간중 사망자수는 연도별 1일내 또는 1일후 사망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질병은 WHO 분류법에 의한 사고, 중독 및 폭력(XVII), 소화기질환(IX)과 내분비·신진대사 및 영양장애(III)의 언급된 순으로 많아서 각각 51.0%, 12.7%, 6.8%를 나타냈다. 내원한 모든 환자가 음주와 관련있으며 단순음주가 64%나 높다. 또한, 음주의 심각성과 질병의 종류수간에는 퍼어슨 상관계수 0.287의 순상관관계가 나타나 음주가 중중이며 심각할수록 질병을 보유한 종류수도 증가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입원하고 있는 기간에는 비록 질병으로부터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안락한 주거와 편안한 식생활로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보편적으로 입원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연장승인 신청서」를 이용하여 입원 연기를 하고 있다. 입원이 끝나면 가야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랑인들은 정착지에 대해 몹시 불안해 한다. 속칭 「내구역」이라는 역전, 지하도, 시장 한귀퉁이, 폐허된 건물 등에 외부 침입자가 나타날 때에는 서로가 폭력으로 대항하여 찰과상, 골절 등 불의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행정기관에 의해 내원한다.

현 의료법상 부랑인에 대한 외래 진료권이 없다. 입원 후 퇴원하여 수용시설 및 전문 기관으로 의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지역(종교단체, 독지가 등)으로 퇴원하였을 때 계속 관리를 하여야 할 환자가 많은 데 부랑인 복지법이 없는 관계로 입원 진료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삶은 동물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보건비 사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3차의료시설, 전공분야훈련 등의 정부비용을 삭감하고 대신 환경오염예방, 타인의 건강위협이 되는 음주자들의 사고예방, 소외된 부랑인들의 복지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정치적으로 공익성과 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